

2018년

전례분과 교육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목국 신교진례시목부

목 차

| | |
|--|----|
| ■ 2018년 사목교서 | 1 |
| ■ 2018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 4 |
| ■ 전례분과 회칙 | 5 |
| ■ 전례분과 매뉴얼 | 10 |
| ■ [첨부1]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주요 변경 사항과 발행 연표..... | 29 |
| ■ [첨부2] 새 『로마 미사 경본』 에서 달라진 점들..... | 31 |

2018년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사랑은 새로운 복음화의 열매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는 2012년 10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허약한 신앙을 튼튼하게 다지는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노력은 신앙의 강화와 성장을 위하여 다섯 가지 사목 목표를 세워 매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그 마지막 해로서 지금까지 다져온 신앙에 기초하여 우리 교구 전체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실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¹⁾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려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1요한 4,19 참조)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 전례에 중점을 두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온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머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더욱 다져진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처럼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완성은 사랑”²⁾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생을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 안에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도 바오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이 중요하다고 말씀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2항.

2) 이냐시오스, 「일곱 편지」, 분도출판사, 2000. 39쪽.

하십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야고 2,17)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끊임없이 의심에 좌우되는 감정에 불과”³⁾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삶,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답게 살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신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성실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⁵⁾,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⁶⁾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을 이루며 서로 성장과 성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며 또 이웃 사랑은 우리를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기술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영적 가난으로 고통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육체적 차원은 물론 영적 차원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배고픈 이, 목마른 이, 헐벗은 이, 나그네 된 이, 병든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의 힘이 되어 주고, 죽은 이들을 장사지내주어야겠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이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 주며, 죄인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며, 모욕한 자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인내로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⁷⁾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루카 10,29-37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 이 순간 고통 받는 이들까지도 사랑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각 본당과 기관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숙고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에서의 소공동체 모임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 「믿음의 문」 14항.

4) 참조 : 마르 12,29-31.

5)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6) 교황 프란치스코, 세계주교대의회 회의 후속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3항.

7) 참조 : 「가톨릭교회 교리서」 2447항.

사제 여러분,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노력합니다. 사제로 불림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목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도록 합시다. 특히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육체적·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 봉헌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관상 생활이든 사도적 생활이든 여러분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일치와 성덕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건설하는 사명에 열정을 지닌 이들”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신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시켜야겠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가정과 본당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작은 숯불 조각들이 모여 온기와 빛을 주는 하나의 커다란 숯불이 되듯 각자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정은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에 둔 공동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직장, 사회 안에서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의 뜻을 더 헤아리며,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의 삶을 더 배우고, 미사 전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고 체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온 삶을 통해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7년 대림절에

유영수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8)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 수도 공동체들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2014.8.16)

2018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사목국

1.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새기고, 전하도록 합시다.
2. ‘말씀·기도·교회 가르침·미사’의 통합적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3. 삶의 자리에서 자비의 육체적·영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합시다.
4.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평신도 사도직 사명을 실천합시다.

<선교전례사목부>

1. 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본당 중심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운동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당 내 냉담 교우들을 다시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별히 미사 중에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2. 예비신자 교육과 특별히 교리 봉사자들의 양성과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구에서 실시 중인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신자 교리서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양성 교육과 교리봉사자 재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가톨릭 교리학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세례 후 새신자들이 온전히 신앙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세례 이후 후속 교리 심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본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입교부터 세례, 견진성사까지 체계적으로 입문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특별히 새신자들의 동반자인 대부모에 대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쏟아 주십시오.
4. 전례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본당 전례 봉사자들을 위한 전례학교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심화 교육을 위해서는 가톨릭 전례학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례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례분과 위원회 회칙(예시)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천주교 _____ 성당 전례분과 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부른다.

제 2 조 (소속)

본 위원회는 본당 사목협의회 전례분과에 소속한다.

제 3 조 (목적)

1. 본 위원회는 본당 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전례에 관한 모든 활동에 봉사하며
2.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미사 및 전례의 모든 예식이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3. 본당 교우에게 전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4. 전례위원회 산하 각 단체가 맡은 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단체 간 상호 협조 및 소통을 도우며
5. 전례분과위원회의 회원들과 신자들을 위한 체계적 전례교육을 기획, 실시한다.

제2장 조 직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임신부, 담당수녀, 전례분과위원장, 총무, 서기로 구성된 임원진과 본 위원회 소속 단체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임원진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서기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례단장, 평신도성체분배단장, 독서해설단장, 복사단장, 성가대장, 반주단장, 제대회장, 헌화회장 등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주임신부의 승인을 통하여 구성된다.

제 5 조 (임원)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사목협의회의 자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회원 중 한 사람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총 무 :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재무 관리 및 회의 소집과 회원의 전례활동 배정 임무를 수행한다. 총무는 회원 중 한 사람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서 기 :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기록 및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서기는 회원 중 한 사람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1. 본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장 회 원

제 7 조 (자격)

본 위원회의 회원은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로서, 본 위원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로 한다.

제 8 조 (입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회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구 전례학교 이수자 혹은 그에 준하는 전례 교육 이수자
2. 입회 전 3개월간 연속하여 평일미사 주 3회 이상 참례한 자
3.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타 본당에서 전례봉사를 2년 이상 봉사한 자

제 9 조 (권리와 의무)

본 위원회의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본당에서 집전되는 모든 전례에서 전례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2. 회원에게 필요한 교육(교구, 본당)을 받을 권리와 의무
3. 전례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시정사항의 건의
4. 본 위원회의 목적에 따른 모든 활동에 참여 의무
5. 본 위원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6. 본 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의무

제 10 조 (징계 및 제명)

1. 회원들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간 전례활동을 중단 시킬 수 있다.
 - 1) 해당 전례봉사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 2) 각 단체의 월례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회원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 회의를 거쳐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제명할 수 있다.

가.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누적 3개월간 전례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 및 위해한 행위로 본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제4장 회 의 및 의 결

제 11 조 (회의)

1. 본 위원회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며, 참석자는 임원과 위원들로 제한한다. 단, 필요시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의결)

1. 본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월례회의에서 이루어진다.
2. 월례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된 사항은 사목협의회장을 거쳐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장 재 무

제 13 조 (재정)

1. 본 위원회의 재무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 본 위원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본당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회계보고)

본 위원회의 회계보고는 매월 위원 월례회의 시 보고한다.

제6장 활 동

제 15 조 (기능)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례단

가. 미사 전례

- 1) 미사 해설자 배정 및 교육
- 2) 미사 전,후 신자기도 유도

- 나. 대림절 및 사순절, 대축일 전례
 - 1)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전례
 - 2) 예수 부활 대축일, 십자가의 길, 성지 주일, 성주간 예절
- 다. 제 성월 및 전례주기에 따른 전례와 신심 행사
 - 1) 성시간
 - 2) 신심미사
 - 3) 성모의 밤 등
- 라. 각종 성사 전례(성인세례, 견진, 혼배, 장례) 및 대축일 전례부분의 주관
- 마. 전례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 바. 본당의 날, 설 및 한가위 대축일 합동 위령미사 주관 등
- 2. 비정규 성체분배단
 - 가. 미사 전례
 - 1) 미사 중의 비정규 성체분배 임무 수행
 - 2) 성체분배 활동 배정과 교육 신청
- 3. 독서단
 - 가. 연간 주일미사 독서자 배정 및 교육
- 4. 복사단
 - 가. 주일(평일) 미사 복사 봉헌
 - 나. 장례 미사 복사 봉헌
 - 다. 본당 내 특별 미사 복사 봉헌
- 5. 반주단
 - 가. 미사 전례 시 미사곡과 성가 반주 봉헌
 - 나. 각종 전례 행사의 반주 봉헌
 - 다. 각종 미사 전례에 따른 반주 교육
- 6. 제대회
 - 가. 매일 미사 및 각종 전례행사 준비
 - 나. 제대 및 제의 방 청소, 성작수건·물수건·장백의 세탁
 - 다. 성구(촛대, 십자가, 감실, 기타) 관리
- 7. 헌화회
 - 가. 시기별 전례에 따른 제대 꽃 봉헌
 - 나. 주일 및 주간 미사 전례에 따른 제대 꽃 봉헌
 - 다. 화기, 창고 정리 정돈 및 성모상 앞 청결 유지 및 관리
- 8. 성가대
 - 가. 미사 전례 성가 및 각종 전례행사 특송 봉헌
 - 나. 전 신자 성가지도 및 미사곡 보급

제7장 회 칙 개 정

제 16 조 (발의)

본 위원회의 회칙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17 조 (확정)

전조에서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월례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전체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며,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 시행한다.

제 18 조 (한계)

본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개정은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은 날(2___년 ___월___일)로부터 시행한다.

전례분과 매뉴얼(예시)

I. 임무 및 내용

1. 전례분과의 임무

전례분과는 본당의 성직자들을 도와 전례의 진행을 돕고 기록하고 아름다운 전례가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전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획, 조직, 교육, 운영, 평가하는 일을 담당한다.

전례분과는 본당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례를 통해 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모든 활동이 전례분과의 임무가 된다. 이를 위해 구역반장 및 활동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전례분과위원들과 신자들을 위한 피정과 교육을 주도하며 전례 봉사자를 발굴 육성하는 일체의 업무가 전례분과의 임무라 할 수 있다.

1. 전례분과의 업무 내용

가. 본당 차원의 전례 계획 수립

- 1) 본당 사목 중 전례분야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 수집, 분석, 연구 검토하여 본당 사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전례분과의 연중 및 월중 계획 수립
- 3) 신자들의 전례 교육 계획 수립

나. 전례주년에 따른 준비사항

- 1) 모든 미사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단체별 준비사항, 당일업무 분담 내용, 체크리스트는 미사의 특성상 별도로 준비
- 2) 교우들이 미사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제반 예절을 합당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해설, 독서 및 안내봉사

다. 예산계획

- 1) 연 초 수립된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행사 계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신청한다.
- 2) 예산 신청, 심의, 결산은 각 본당 상황에 맞춘다.

II. 양성 교육

1. 교구 교육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에서 마련되는 교육은 공문과 주보를 통해 공지되고, 교육을 담당하는 임원은 이를 확인하여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018년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교육

| | 전례 | | | |
|-----|--|--|---------------------------------------|---|
| | 성주간 전례 교육 | 수도자 성체분배권 교육 | 전례학교 | 전례 아카데미 |
| 대상 | 본당 전례분과위원,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 1. 성체분배권 신규 교육이 필요한 수도자 2. 성체분배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교육이 필요한 수도자 | 본당 전례분과위원,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 본당 전례분과위원,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
| 인원 | 450명 | 100명 | 200명 | 150명 |
| 참가비 | 10,000원 | 10,000원 | 30,000원 | 1,2학기 각 ① 일반신자 150,000원 ② 수도자 80,000원 |
| 횟수 | 연1회 | 연2회 | 연2회 | 연1회 |
| 기간 | 1일 | 1일 | 6주 | 총 24주 (1,2학기 각 12주) |
| 일시 | 수) 3/7 13:30-17:00 | 1차: 수) 3/14 10:00-12:00 | 1차 : 목) 4/5~5/10 14:00-16:00 | 1학기 : 화) 3/6~5/29 14:00-16:00 |
| | | 2차: 수) 9/12 10:00-12:00 | 2차 : 목) 10/25~11/29 19:00-21:00 | 2학기 : 화) 9/4~12/4 14:00-16:00 |
| 장소 | 명동성당 코스트홀 | 가톨릭회관 강당 또는 교구청 강의실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 내용 | 성주간의 영성, 성주간 전례의 의미와 실무 | 성체성사의 일반적 이해, 성체분배에 대한 전례규정 및 성체분배시의 유의사항 | 전례의 영성과 실무적 자세, 전례의 의미 | 전례 심화 :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 제공 |
| 주관 |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전화: 727-2065~6 팩스: 727-2374 전자우편: missionary@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www.samok.or.kr | | | 가톨릭 전례학회 전화: 031)853-7713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육은 정원에 도달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 마감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신도 성체분배권 교육은 각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 각 본당 사무실에 발송된 공문의 신청서로 접수해 주십시오. - 교육 일시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2. 본당 교육

분과 위원들/본당 신자들을 위한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III. 활동계획서

| 전례주년에 따른 전례분과 활동 | | |
|-------------------------------|------|---|
| 활동분야 | 활동대상 | 행사 및 활동명 |
| 미사 전례 보조 전례교육 경건한 전례 도모 | 전 교우 | 1. 주일(평일) 미사 2. 사순 시기 미사 가. 재의 수요일 미사 나.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라. 주님 수난 예식 마. 부활 성야 미사 3. 성탄 밤 미사 4. 장례 미사 5. 혼배 미사 6. 세례 예식 7. 견진 예식 8. 명절·위령 미사 |

1. 주일(평일) 미사

주일(평일) 미사가 경건하게 봉헌되도록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에게 미사 예절을 안내한다.

가. 준비일시

- 1) 주일 미사: 미사 시작 30분 전
- 2) 평일 미사: 미사 시작 15분 전

나. 장 소: 대성전

다. 기본계획

| 활동절차 | 담당자 | 활동내용 |
|-------|---------|--|
| 30일 전 | 분과별 담당자 | 전례봉사자 명단 확정 및 전례 일정표 확인 |
| 2주일 전 | 성가대 반주단 | 성가, 미사곡, 화답송 연습 |
| 1주일 전 | 헌화회 | 전례주기에 맞추어 제대 앞 꽃 장식 (매주 금요일) |
| 당일 | 분과별 담당자 | 제대 및 전례 준비 미사 30분 전 미사 준비 완료 및 담당자 자리에 위치 |

라. 단체별 준비사항

| | |
|---------|--|
| 기획분과 | 미사 중계 준비 (제대 앞 스크린, 빔 프로젝트, 비디오·사진촬영) |
| 여성구역분과 | 예물(주수)봉헌 교우부부 선정, 명단확보 |
| 전례단 |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과 미사보 (해설자, 독서자) |
| 해설자 | 예절 전 해설 준비 (매일미사 책에서 해설 부분 확인 후 연습), 공지사항 및 성가번호판 확인 (해설대) |
| 독서자 | 제 1·2 독서, 보편지향기도 연습 |
| 성가대·반주단 | 성가, 화답송, 미사곡, 특송 선정 (사전 협의) |
| 제대회 | 제의 일체(전례주기에 맞게 준비), 성작, 성합, 대제병, 초, 미사 경본, 제구 등 제대차림, 무선마이크(2대, 건전지 확인), 본당의 보편지향기도(필요 시) 준비 |
| 성체분배단 | 미사 10분 전 약식 중백의 착용 |
| 헌화회 | 전례주기에 따른 꽃 장식 |
| 남성 꾸리아 | 성가책, 주보, 봉헌금 봉투 준비 |
| 여성 꾸리아 | 봉헌 바구니(7개), 전례복 착용 |
| 복사단 | 시종복사(4명) 명단, 복사복, 흰 실내화, 초롱 |

마. 업무분담

| | | |
|--------|---|---|
| 기획분과 | 미사 30분 전에 미사 중계 준비(제대 앞 스크린, 빔 프로젝트, 비디오·사진촬영)를 하고 미사를 중계한다. | |
| 여성구역분과 | 예물봉헌 교우부부의 명단 및 출석을 확인하고, 예물봉헌 예절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정해진 좌석으로 안내한다. | |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과 미사보를 착용한다. | |
| | 해설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사해설 준비 및 독서자를 확인한다. ② 지도수녀에게 매월 마지막 주에 익월 봉헌할 성가 목록을 받고 당일 미사 시 재확인한다. ③ 성가번호(입당, 봉헌, 성체, 파견)를 성가번호판에 입력한다. ④ 미사 시작 전 기도를 인도한다. ⑤ 전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사 예절을 안내한다. ⑥ 미사 전 공지사항을 안내한다. ⑦ 미사 중 사용할 종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일미사) |
| | 독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 1·2독서 내용을 확인하고 마이크(2대)도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한다. ② 독서자는 사전에 낭독할 독서와 보편지향기도를 연습한다. |

| | | |
|---------|--|--|
| | | ③ 독서자는 계단 중간에서 사제에게 예를 표하고, 독서대 앞에서 경본에 예를 표한 후 해당 부분의 독서를 낭독한다. ④ 보편지향기도를 한다. (주일미사)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중 모든 성가, 화답송, 영성체 후 특송을 연주한다. | |
| 제대회 | 제대를 준비한다. | |
| 성체분배단 | 성체분배자는 약식 중백의를 착용하고, 영성체 예식 때 제대 위로 올라가 사제에게 성합을 받아 정해진 자리에서 성체를 분배한다. 유아방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빠짐없이 성체를 분배한다. | |
| 남성 꾸리아 | 성전 밖에서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을 안내하고 성가책, 주보, 봉헌금 봉투를 나누어 준다. | |
| 여성 꾸리아 | 전례복을 착용한 봉헌금 봉사자는 봉헌바구니를 지정된 자리에 놓고, 교우들의 봉헌이 끝난 후 제대 앞에서 인사드리고 봉헌 바구니를 제대 앞 계단 중간에 정렬하여 놓는다. | |
| 복사단 | 복사복과 흰 실내화를 착용하고, 미사 전 초롱을 이용하여 제대 초에 점등하고 미사 후 제대 초를 소등한다. 미사 전례를 보조한다. | |

바. 체크리스트

| | 담당 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기획분과 | 중계를 위한 제반 장비는 빠짐없이 준비되었나? | |
| | 여성 구역분과 | 예물 봉헌자 출석을 확인하고 주의사항과 지정석에 앉도록 안내하였나? | |
| | 전례단 (해설자, 독서자) | 전례 진행에 도움을 주는 협력 분과들의(성체분배단, 헌화회, 제대회, 여성구역분과, 여성·남성 꾸리아) 봉사자 명단은 확정되었나? | |
| | | 해설자와 독서자는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과 미사보를 착용하였나? | |
| | | 해설자는 미사 전 해설 준비, 공지사항을 확인하였나? | |
| | | 평일 미사 중 사용할 종(해설대)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나? | |
| | | 독서자(2명)는 전례 전 연습을 하였나?(제 1,2독서, 보편지향기도) | |
| | 성가대 반주단 | 미사 때 연주할 미사곡, 성가, 특송을 확정하고 연습하였나? | |
| 헌화회 | 헌화회는 전례력에 따라 제대 꽃 장식을 하였나? | | |

| | | | |
|-----|-----------------------------|--|----------------|
| | 제대회 | 제대 차림을 준비하였나? | |
| | | 무선마이크는 이상이 없는지(건전지 확인) 점검하였나? | |
| | 남성 꾸리아 | 미사 시작 30분 전 성전 앞에서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 성 가책과 주보, 봉헌금 봉투를 준비하였나? | |
| | | 여성 꾸리아 | 봉헌 바구니는 준비하였나? |
| | | |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복사단 | 복사복과 흰 실내화를 착용하고 초롱을 준비하였나? | | |

2. 사순 시기 미사

예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간 통회와 보속 희생의 정신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가. 재의 수요일 미사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미사로 연중 주일 미사나 평일 미사 예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 단체별 준비사항

가) 전례단: 보라색 전례복 (독서자, 해설자)

나) 제대회: 재의 일체(보라색), 재 그릇, 무선마이크(2대)

다) 사무실

(1) 미사 10일 전, 교우들이 성지 회수에 참여하도록 주보에 공지한다.

(2) 미사 2~3일 전, 교우들에게서 회수한 마른 성지가지를 태운 재를 준비한다.

2)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보라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미사 후 | 제대회 | 재 그릇은 준비하였나? | |

나.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교우들이 성지 주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지 주일 미사의 경건한 진행을 위하여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에게 예식 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전례단 | 붉은색 전례복(해설자, 독서자), 수난복음 3권, 마이크 2대, 보면대 2개(독서대 양옆으로 붙임) |
|-----|---|

| | |
|-----|---|
| 제대회 | 제의 일체(붉은색), 사제용 성지(聖枝), 행렬용 십자가, 향로 일체, 촛대 2, 성작 일체, 주수병, 미사 경본, 종, 책 틀 |
| 사무실 | 성지(聖枝) 준비 (대성전 입구) |

2) 당일업무 분담

| | |
|---------|--|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붉은색 전례복을 착용한다. |
| 해설자 | 미사 시작 10분 전, 해설자는 미사에 참례 교우들이 수난 복음 독서 중 균 중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한다. |
| 독서자 | 미사 시작 30분 전, 수난 복음 해설자들은 마지막 연습을 한다.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중 모든 성가, 행렬 시(예루살렘 입성식) 성가, 성지 축성 시 성가, 화답송, 영성체 후 특송을 연주한다.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붉은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 | 미사 시작 10분 전, 해설자는 미사 참례 교우들이 수난 복음 독서 중 균중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나? | |
| | | 수난 복음 해설자들은 전례 전 연습을 하였나? | |
| | 성가대 반주단 | 연주할 미사곡, 성가, 특송을 확정하고 연습하였나? | |

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

교우들이 성 목요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미사에 참여하도록 사전에 이를 준비하고,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에게 예식 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전례단 | 백색 전례복 (해설자, 독서자) |
| 제대회 | 제의 일체(백색), 행렬용 십자가, 행렬용 촛대 2개, 향로, 향그릇, 성작 일체, 성합, 사제용 제병(3개), 어깨보(백색), 주수병, 성냥, 종, 나무 딱따이, 자색천(제대 중앙 십자가, 성당 내 성모상과 요셉 성인상 가림용), 세족례용 큰 대야 2개, 주전자 2개, 물수건, 세족례용 온수, 수건 12개 |

| | |
|------------------------|--|
| 복사단 | 시종복사(2명), 향복사(2명), 촛대복사(2명), 십자가복사(1명)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중 모든 성가, 행렬 시 성가, 화답송, 영성체 후 특송 준비 |
| 시설분과 | 제대 중앙 십자가 가림 예식 절차에 필요한 시설물 작동여부 확인 |
| 세족례 대상자 소속 해당단체 (변동가능) | 대상자에게 연락, 참석 여부 확인 |

2)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백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 제대회 | 제의 일체(백색), 행렬용 십자가, 향로, 향그릇, 행렬용 촛대 2개, 성작일체, 성합, 사제용 제병(3개), 주수병, 어깨보(백색), 가림용 자색천, 성냥, 종, 나무 딱딱이, 세족례를 위한 준비물(세족례용 큰 대야 2개, 주전자 2개, 수건 12개)을 준비하였나? | |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중 모든 성가를 결정하고 연습하였나? | |
| | 시설분과 (사무실) | 제대 중앙 십자가 및 성당 내 성모상, 요셉 성인상을 가림 시설물을 확인하였나? | |
| | 해당단체 | 세족례 대상자 명단확인, 연락, 출석점검, 예절교육을 하였나? | |

라. 주님 수난 예식

교우들이 예수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를 준비하고,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에게 예식 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여성구역분과 | 십자가 경배 안내담당자 선정 |
| 전례단 | 붉은색 전례복(해설자, 독서자), 수난 복음 해설자 선정, 확인 |
| 제대회 | 제의 일체(붉은색), 성체포, 제대포, 경배용 십자가·받침대(시설분과 협조) 1개(대), 작은 책 틀, 어깨보, 예식서, 무선마이크 2개, 촛대 2개, 어깨보 준비 |
| 복사단 | 시종복사(2명), 촛대복사(2명) |
| 성가대·반주단 | 수난 예절 중 모든 성가, 화답송, 영성체 후 특송 준비 |

2) 당일업무 분담

| | |
|--------|--|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붉은색 전례복을 착용한다. |
| 해설자 | - 십자가 경배 예절과 진행절차를 안내한다. -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에게 예루살렘 성지복구 헌금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봉헌 후 십자가에 경배하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
| 독서자 | 미사 시작 30분 전 수난 복음을 연습한다. |
| 여성구역분과 | 십자가 경배 시 경건하게 십자가를 경배하도록 안내한다. |
| 시설분과 | 십자가 벗김 예식 절차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인한다.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활동 전 | 전례분과 | 해설자와 독서자는 붉은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 | 담당 독서자와 수난 복음 해설자는 미리 연습을 하였나? | |
| | | 수난 복음 3권, 보면대 2개, 무선마이크 2개는 준비하였나? | |
| | 복사단 | 시종복사1·2, 촛대복사1·2는 각자 준비물을 확인하고 행사 연습을 하였나? | |
| | 제대회 | 제의 일체(붉은색), 경배용 십자가, 십자가 받침대, 촛대 2개, 성체포, 제대포, 작은 책 틀, 어깨보, 성작수건, 예식서, 사제용 방석을 준비하였나? | |
| | 시설분과 (사무실) | 십자가 자색천 벗김 예식 절차에 필요한 시설물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나? | |
| | 여성 구역분과 | 십자가 경배 안내 봉사자는 정해진 위치에서 담당 역할 별로 연습을 하였나? | |

마. 부활 성야 미사

교우들이 부활성야미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를 준비하고,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이 경건하게 미사를 바칠 수 있도록 예식절차와 예절을 안내하고 있다.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전례단 | 해설대·독서대, 백색 전례복 (독서자, 해설자) - 해설자: 미사 전 예식 해설 읽고 준비 - 독서자: 부활 독서 담당자, 서간 독서 담당자 확인 |
| 제대회 | ① 제의 일체(황금색), 행렬용 촛대 2개, 향로 일체, 성작, 성합, 주수병, 물수건 ② 촛불 축성할 곳(성전입구): 부활초, 화로, 숯, 향, 지시봉, 초심지, 손전등, 집게, 예절서, 무선마이크 |

| | |
|---------|--|
| | ③ 제대 앞: 축성할 성수, 소금 그릇, 바가지, 젖는 막대기, 성수그릇, 소형 꽃 장식, 받침대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중 모든 성가, 화답송, 대영광송, 알렐루야, 영성제 후 특송 준비 |
| 여성 꾸리아 | 봉헌 바구니, 사순절 저금통 회수 바구니 준비, 부활계란 준비 |
| 남성 꾸리아 | 주차관리봉사 담당자 확보, 빛의 예식 진행 준비 |
| 복사단 | 시종복사(2명), 촛대복사(2명), 향복사(1명), 십자가복사(1명), 흰 장갑(6벌) |
| 사목회 | ① 부활달걀 콘테스트 시상 준비 (수상단체 사전 자리 배치 및 상장 준비) ② 여성부회장은 부활달걀 콘테스트 수상 단체에게 시상 일정 및 절차를 알린다. |
| 여성구역분과 | 초 점화 봉사자 선정 |
| 성물방 | 교우들에게 판매할 부활 초 준비 |

2) 업무분담

| | | |
|--------|---|--|
| 전례단 | 독서자와 해설자는 백색 전례복을 착용한다. | |
| | 해설자 | ① 미사 전 빛의 예식을 위한 초를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우들이 부활 성야 미사 행렬 중 사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선창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세 번 답하고, 파견 시 알렐루야를 세 번 답하도록 안내한다. ③ 미사 후 질서를 지켜 부활달걀을 받아가도록 안내한다. |
| | 독서자 | 부활 독서자는 미사 시작 전에 자신이 낭독할 독서부분을 확인하고 연습한다. |
| 남성 꾸리아 | 주차관리봉사, 빛의 예식 전 전체 소등, 부활초 점화 후 점등, 행렬이 끝난 후 부활 찬송 때 전체 점등의 활동을 한다. | |
| 여성 꾸리아 | 미사 전·후 성전 앞에서 사순절 저금통을 회수한다. | |
| 여성구역분과 | 미사 후 전 교우에게 질서 있게 부활달걀을 나누어 주며, 초 점화 봉사자는 지정된 위치에서 교우들의 초 점화를 돕는다. |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사목회 | 부활달걀 콘테스트 수상자를 확정하여 명단을 수상 단체에 통보하였나? | |
| | 전례분과 | 독서자와 해설자는 백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 여성구역분과 | 초 점화 봉사자는 정해진 위치에서 담당 역할별로 연습을 하였나? | |

| | | | |
|--|--------|--|--|
| | 제대회 | 제의 일체(백색), 행렬용 촛대 2개, 향로 일체, 성작, 주수병, 부활초 촛대는 빠짐없이 준비되었나? | |
| | | 불 축성 할 곳(성전입구)준비물: 부활초, 화로, 숯, 향, 지시봉, 초심지, 손전등, 집게, 예절서, 무선마이크 2개는 준비하였나? | |
| | | 제대 앞 축성할 성수: 소금 그릇, 바가지, 젖는 막대기, 성수 그릇, 소형 꽃 장식, 받침대는 준비하였나? | |
| | | 제대와 독서대 사이 부활초 촛대를 준비하였나? | |
| | 여성 꾸리아 | 봉헌 바구니(7), 저금통 회수 바구니를 준비하였나? | |
| | 복사단 | 시종복사1·2, 촛대복사1·2, 향복사, 십자가복사는 하얀 장갑과 각자 준비물을 확인하고 연습을 하였나? | |
| | 성물방 | 교우들에게 판매할 부활초를 넉넉하게 준비하였나? | |

3. 성탄 밤 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로, 전례분과에서는 협력분과들의 협조 하에 미사를 준비하고,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식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가. 기본계획

| 활동절차 | 담당자 | 활동내용 |
|-------|--|------------------------------|
| 60일 전 | 주임신부·수녀 전례분과장 협조단체장 | 예절내용 및 협조 단체 협조사항·준비일정 수립 |
| 30일 전 | 주임신부·수녀 전례분과장 협조단체장 | 예절 세부내용 확정 및 협력 분과(단체) 협조 점검 |
| 3일 전 | 보좌 신부, 전교수녀 복사단 전례단봉사자 협조단체봉사자 | 전례단, 협력 분과(단체) 전례 총 연습 |
| 당일 | 봉사자 전체 | 미사 1시간 전 준비 사항 확인 및 완료 |

나. 세부계획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남성구역분과 | 점등·소등 봉사자 명단, 스포트라이트 조명 담당자 선정 |
| 여성구역분과 | 촛불 점화 봉사(심지, 성탄 초) 준비 |
| 전례단 | 백색 전례복 (독서자, 해설자) - 해설자: 손전등, 기도문, 공지사항(구유경배, 구유예물, 성탄 초 준비) - 독서자: 손전등, 보편지향기도문 |
| 제대회 | 제의 일체(백색), 향 일체, 손전등, 복사용 초, 초 수거용 바구니, 성합, 구유 앞 초심지, 라이터, 보편지향기도문, 구유축성문, 성가대 스탠드마이크 설치, 천사 |
| 여성 꾸리아 | 봉헌바구니, 구유예물 바구니 준비 |
| 복사단 | 시종복사(2명), 촛대복사(2명), 향복사(1명), 복사단 전원(행렬시) |
| 성물방 | 교우들에게 판매할 성탄 초 준비 |
| 시설분과(사무실) | 손전등, 스포트라이트 |

2) 업무분담

| | | | |
|--------|---|-----|--|
| 기획분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탄 밤 미사 40일 전, 성탄미사 일정 및 행사계획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기획·제작한다. ② 성탄 밤 미사 30일 전, 홍보물을 교우들에게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한다. ③ 성탄 밤 미사 당일, 미사 및 구유경배를 중계한다. | | |
| 남성구역분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유안치 전 묵상 시 성당 내 모든 불을 끈다. ② 아기예수가 입장하면 아기예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③ 아기예수를 구유에 안치하고나면 성탄 트리에 점등한다. | | |
| 여성구역분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총구역장은 해설자의 촛불점화 안내에 따라 여성구역장들의 초에 점화한다. ② 각 구역장은 해당 위치에서 교우들의 촛불점화를 돕는다. ③ 구유경배 시 교우들의 구유경배를 인도한다. | | |
| 전례단 | <p>독서자와 해설자는 백색 전례복을 착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독서자</td> <td> <p>구유안치독서 담당자, 제 1·2 독서담당자는 미사 시작 전에 각자 읽을 독서부분을 확인하고 연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편지향기도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② 구유안치 시 담당 독서자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 중간쯤에서 사제에게 예를 표하고 독서대 앞에서 경본에 예를 표한 다음 독서대로 가서 맡은 부분을 읽는다. </td> </tr> </table> | 독서자 | <p>구유안치독서 담당자, 제 1·2 독서담당자는 미사 시작 전에 각자 읽을 독서부분을 확인하고 연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편지향기도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② 구유안치 시 담당 독서자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 중간쯤에서 사제에게 예를 표하고 독서대 앞에서 경본에 예를 표한 다음 독서대로 가서 맡은 부분을 읽는다. |
| 독서자 | <p>구유안치독서 담당자, 제 1·2 독서담당자는 미사 시작 전에 각자 읽을 독서부분을 확인하고 연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편지향기도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② 구유안치 시 담당 독서자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 중간쯤에서 사제에게 예를 표하고 독서대 앞에서 경본에 예를 표한 다음 독서대로 가서 맡은 부분을 읽는다. | | |

| | | |
|--|---------|---|
| | 해설자 | ① 손전등, 공지사항(미사 전 안내: 구유경배, 성탄 초 준비, 구유예물, 봉헌예물 준비 등)을 확인한다. ② 아기예수 구유안치 전 묵상을 위하여 성당 내 모든 불이 꺼지면 해설자는 손전등을 켜고 성탄 밤 미사의 의미를 해설한다. |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중 모든 성가, 구유경배 시 성가, 화답송, 영성체 후 특송을 연주한다. |
| | 복사단 | 역할별로 사제를 도와 미사를 봉헌한다.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남성구역분과 | 점등·소등 봉사자 명단을 확정하였나? | |
| | | 스포츠라이트 조정 담당자를 선정하였나? | |
| | | 예식 절차 중 점등시간을 확인하였나? | |
| | 여성구역분과 | 촛불 점화용 심지와 초를 준비하였나? | |
| | 전례단 (해설자, 독서자) | 해설자와 독서자는 백색 제례복을 준비하였나? | |
| | | 독서자들은 구유안치 독서, 제1·2독서, 보편지향기도를 연습하였나? | |
| | 성가대/반주단 | 미사 때 사용할 미사곡, 성가, 특송을 확정하고 연습하였나? | |
| | 제대회 | 제의 일체(백색), 향 일체, 손전등, 복사용 초, 초 수거용 바구니, 성합, 라이터, 보편지향기도문, 구유축성문, 성가대 스탠드마이크, 무선마이크, 천사(담당수녀와 협의)는 준비되었나? | |
| | 여성 꾸리아 | 구유예물 봉헌 바구니를 준비하였나? | |
| | 복사단 | 시종복사(2명), 촛대복사(2명), 향복사(1명), 복사단 전원은 연습시간을 엄수하고 각자 맡은 준비물을 빠짐없이 준비하였나? | |
| 시설분과 (사무실) | 손전등, 스포트라이트를 준비하였나? | | |
| 헌화회 | 성탄 밤 미사 형식에 맞추어 제대 꽃 장식을 하였나? | | |

4. 장례 미사

선종자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하며 봉헌하는 미사로 전례분과에서는 협력 분과들의 협조 하에 미사를 준비하고, 장례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식 절차와 예절을 안내하고 있다.

가. 준비일시

- 1) 일 시: 평일 새벽 미사 또는 10시 미사
- 2) 장 소: 대성전

나. 주 관: 전례단, 연령회

다. 기본계획

| 활동절차 | 담당자 | 활동내용 |
|------|------------|------------------------------|
| 2일 전 | 성가대 반주단 | 성가, 미사곡 선정, 연습 |
| | 연령회 | 상·장례 예식준비 |
| 당 일 | 분과별 담당자 | 미사 30분 전 미사 준비 완료 및 담당자 자리위치 |

라. 세부계획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전례단 | 백색 전례복 (해설자, 독서자) |
| 성가대(검정색옷·미사보) 반주단 | 적절한 성가와 미사곡 선정, 연습 |
| 제대회 | 백색 제의, 행렬용 십자가, 향합, 향로, 예절 장갑, 성수, 영정 사진용 이동 테이블, 장례용 경분, 제구, 무선마이크 |
| 연령회 | 상·장례 예식 준비 |

2) 업무분담

| | |
|---------|----------------------------------|
| 사무실 | 연령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목회 분과장들에게 통보한다. |
| 성가대·반주단 | 장례 미사에 성가와 미사곡을 준비하여 연주한다. |
| 제대회 | 장례 미사 형식을 갖추어 제대를 준비한다. |
| 연령회 | 장례 미사 관련 제반 준비를 한다.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백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 성가대 반주단 | 장례 미사에 적절한 미사곡, 성가를 사전 협의 하에 선정하고 연습하였나? | |
| | 연령회 | 상·장례미사 준비는 빠짐없이 되었나? | |
| | 사무실 | 사목회 분과장들에게 부음을 통보하였나? | |

5. 혼배 미사

혼인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로 봉헌한다. 전례분과에서는 협력 분과들의 협조 하에 미사를 준비하고, 혼배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식 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가. 준비일시

- 1) 일 시: 토요일 12시, 2시, 4시 (시간변동 가능)
- 2) 장 소: 대성전

나. 주 관: 전례단 및 협조 단체

다. 세부계획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전례단(해설자) | 백색 전례복, 미사보, 혼배미사 예절서 |
| 제대회 | 예식서, 성수, 혼인예물, 신랑·신부 마이크, 혼배자용 예식 코팅지(2개), 반지 접시, 이동테이블 |
| 헌화회 | 제대 꽃 장식, 하객석 꽃 장식 (혼주가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 |
| 성모회 | 하객 안내(4주), 폐백 준비 |
| 여성구역분과, 여성 꾸리아 | 하객 안내 |
| 성가대 | 미사 중 모든 성가 및 특송 준비 |

2) 업무분담

| | |
|-----|--------------------------------|
| 제대회 | 이동 테이블에 준비된 혼배용 물품들을 제대 앞에 둔다. |
| 성모회 | 폐백준비를 하고 진행을 돕는다. |

| | |
|------------------|--------------------------|
| 여성구역분과 여성 꾸리아 | 단정한 복장으로 혼배 미사 하객을 안내한다. |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전례단 | 해설자는 백색 전례복을 착용하였나? | |
| | 제대회 | 혼배 미사 예절서와 혼인예물은 준비되었나? | |
| | 여성구역분과 여성 꾸리아 | 하객 안내에 적절한 복장을 하였나? | |
| | 성모회 | 폐백준비는 잘 되었나? | |

6. 세례식

전례분과에서는 협력 분과들의 협조 하에 미사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는 예비신자들과 대부·대모, 세례식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식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가. 준비일시

- 1) 일 시: 연중 3회 (성모승천, 부활, 성탄)
- 2) 장 소: 대성전

나. 주 관: 전례단, 교리봉사회

다. 기본계획

| | | |
|-------|------------|--------------------------------------|
| 30일 전 | 분과별 담당자 | 전례봉사자, 예비신자, 대부·대모 명단 확정 및 전례 일정표 확인 |
| 2주일 전 | 성가대 반주단 | 성가, 미사곡, 특송 연습 |
| 당 일 | 제대회 | 제대준비 |
| | 분과별 담당자 | 미사 30분 전 준비 완료 및 담당자 자리위치 |

라. 세부계획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성물방 | 예비신자 초 준비 |
|-----|-----------|

| | |
|-------|--|
| 전례단 |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 |
| 제대회 | 세례수, 성유(예비신자 성유, 축성 성유), 보편지향기도문 |
| 교리봉사회 | 예비신자 및 대부·대모 명단 확보, 예비신자 세례 기념품, 꽃 장식(예비신자용) |

2) 업무분담

| | |
|-------|---|
| 기획분과 | 세례식 30일 전, 세례식 일정 및 행사계획 안내 현수막을 기획·제작 설치한다. |
| 홍보분과 | 세례식 후 교리반 단위로 새신자 단체사진 촬영을 한다. |
| 전례단 | ① 해설자와 독서자는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을 착용한다. ② 독서자는 제1·2 독서 담당자는 각자 읽을 독서 부분을 확인하고 연습한다. |
| 제대회 | 제대 준비 시 세례수와 축성 성유를 준비한다. |
| 교리봉사회 | ① 예비신자, 대부·대모 명단을 확보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② 세례식 시작 전에 예비신자에게 꽃 장식과 명찰을 달아준다. ③ 세례식 시작 전에 세례초와 명찰 수거 바구니를 준비한다. ④ 명찰 수거봉사자(2명)와 세례초 나눔 봉사자(2명)가 2인 1조로 양편에서 명찰을 수거하고 대부·대모에게 세례초를 나누어준다. ⑤ 새신자들의 세례초 점화를 돕는 봉사자들은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복사로부터 부활초에서 점화된 심지를 건네받아 준비된 세례초에 점화한 후 대부·대모에게 전달한다. ⑥ 새신자들에게 첫 고해 및 새 영세자 후속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

3) 체크리스트

| | 담당분과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전례단 | 예비신자들의 기도문(4개)은 준비 되었나? | |
| | 제대회 | 제의 일체(전례주기에 맞는 색), 예비신자 초 수거용 바구니, 예비신자들의 보편지향기도문을 준비하였나? | |
| | | 세례수와 성유를 준비하였나? | |
| | 교리봉사회 | 예비신자, 대부·대모 명단 확보하고 출석을 확인하였나? | |
| | | 세례식 시작 전에 예비신자에게 꽃 장식을 달아주었나? | |
| | | 예비신자들의 촛불점화와 주수세례를 도와줄 봉사자를 선정하였나? | |
| 미사 후 | 교리봉사회 | 세례식이 끝나고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나? | |

7. 견진 예식

전례분과에서는 협력 분과들의 협조 하에 미사를 준비하고, 견진을 받는 신자들, 대부·대모 및 예식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식 절차와 예절을 안내한다.

가. 세부계획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전례단 |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 (독서자, 해설자) |
| 제대회 | 축성 성유, 주교용 초 |
| 선교분과 | 주교 연락처, 견진자·대부·대모 명단, 견진기념품 |
| 성가대 | 미사 중 성가 및 특송 준비 |
| 기획분과 | 견진예식 30일 전, 일정 및 행사계획 안내 현수막을 기획·제작하여 설치한다. |

2) 당일업무분담

| | |
|------|---|
| 전례단 | 해설자와 독서자는 전례주기에 맞는 전례복을 착용한다. |
| 제대회 | 축성 성유와 주교용 초를 준비한다. |
| 교육분과 | 견진자 및 대부·대모의 참석을 확인하고, 견진자용 꽃을 준비해서 달아준다. |
| 홍보분과 | 견진 예식이 끝난 후 조별로 견진자 단체사진 촬영을 한다. |

3) 체크리스트

| | 단체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제대회 | 전례주기에 맞는 제의, 축성 성유는 준비되었는가? | |
| | 교육분과 | 견진자, 대부·대모 명단을 확보하고 출석을 확인하였는가? | |
| | | 견진 예식 시작 전에 꽃 장식을 달아주었는가? | |
| 미사후 | 교육분과 | 견진 예식이 끝나고 견진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는가? | |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대교구 전례위원회에서 발간한 『견진성사 준비 지침』을 참조한다. (사목국 홈페이지 <http://www.samok.or.kr> ▶ 자료실 [선교전례] 참조)

8. 명절·위령 미사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전통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미사를 봉헌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위령 미사를 봉헌한다. 전례단에서는 명절 미사와 위령 미사를 준비하고,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식절차와 예절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한 천주교 제례예식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4조와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 「설·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2012년 한국주교회의 춘계 정기회의 승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http://www.cbck.or.kr> ▶ 문헌마당 ▶ 한국 주교회의 문헌 참조)

가. 세부계획

1) 단체별 준비사항

| | |
|------|-------------------------------------|
| 헌화회 | 명절 미사 시 차례 상차림을 제대 앞에 준비한다. |
| 제대회 | 위령 미사 시 향로, 향 등 제대 앞에 분향 상차림을 준비한다. |
| 시설분과 | 위령 미사 시 선종자 명단 게시물을 설치한다. |

2) 체크리스트

| | 단체 | 체크리스트 | 체크 |
|------|---------------|--------------------------------|----|
| 미사 전 | 헌화회 | 명절 미사 시 명절차례 상차림을 제대 앞에 준비하였나? | |
| | 제대회 | 제의 일체(전례주기에 맞는 색)를 준비하였는가? | |
| | | 위령 미사 시 분향 상차림을 제대 앞에 준비하였나? | |
| | 시설분과 (사무실) | 위령 미사 시 선종자 명단 게시물을 설치하였나? | |

[첨부1]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주요 변경 사항과 발행 연표

* 한국어 미사 통상문 일부 수정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근거 |
|--|--|---|
| 또한 사제와 함께 (신자들의 응답)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Et cum spiritu tuo.) | 경신성사성 공문(Prot. N. 467/05/L) spiritus: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사제가 성품성사 때 받은 ‘성령’을 뜻함 |
| 성찬 전례 감사 기도 제2,3,4양식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 뒤에,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et beati Ioseph, eiusdem Virginis Sponsi) 삽입 | 경신성사성 2013.5.1. 교령으로 삽입된 문구 |
| 감사 기도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 “ 많은 이를 위하여” (PRO MULTIS) | 경신성사성 공문(Prot. N. 467/05/L) 성경 본문대로 옮김 |
| 감사 기도 ‘신앙의 보람’ | “신앙의 표”(signum fidei) | 미사 통상문 95항(구 통상문 97항) |
| 영성체 전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 “ 보라(Ecce) ! 하느님의 어린양, ...” | 경신성사성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결정(라틴어 Ecce 살림) |
| 영성체 전 교우들의 응답 “제가 곧 나으리이다” | “제 영혼 이 곧 나으리이다” (sanabitur anima mea) | 경신성사성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결정 anima: 개인의 영혼을 뜻함 |

* 경신성사성 의견에 따른 전례일 명칭과 등급 수정

| 변경 사유 | 변경 예 |
|---|--|
| 라틴어 최상급 형용사 ‘지극히 거룩하신’(Sanctissimus) 삽입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
| 라틴어 본문의 수식어 명시 |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 동정 마리아에 대한 형용사 ‘복되신’(Beata) 삽입 |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
| 성탄, 부활 대축일 명칭을 라틴어 Dominus에 맞게 수정 |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
|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명칭 삭제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
| “선교의 수호자” 호칭 삭제, 대축일에서 기념일로 등급 변경 |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

*** 한국 고유 전례력과 고유 거행(날짜 순)**

| 전례일 | 비고 |
|---|--|
| (음) 1.1. 설 | 기원 미사. 사순 시기 주일이나 재의 수요일과 겹치면 사순 시기 그날의 미사 전례문 |
| 5.29.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 선택 기념일 |
| 6.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기원 미사 |
| 9.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보편 전례력의 기념일을 한국에서 대축일로 지냄 |
| (음) 8.15. 한가위 | 기원 미사. 한국 순교자들 대축일과 겹치면 대축일 미사 전례문 |
| 12.8.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

*** 한국 고유 전례문:** 한국 교구들에서 드리는 신심 또는 기원 미사를 위해, 라틴어판에 없지만 한국 주교회의가 마련하여 추진받은 미사 전례문들을 수록하였다.

기원 미사: 설, 한가위, 민족의 화해와 일치, 회갑이나 고희

신심 미사: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7월 5일)

*** 악보 수록:** 미사 전례문을 노래로 바칠 수 있도록 라틴어판 로마 미사 경본의 그레고리오 악보를 다듬어 실었다. 라틴어판의 4선 악보 가락을 존중하되, 사제와 신자들이 우리말로 쉽게 노래할 수 있도록 5선 악보로 바꾸어 적절히 편곡한 것이다. 음 높이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발행 연표**

| 한국 교회 | 연도 | 교황청 (경신성사성) |
|---|------------|-------------------------------|
| | 1962-65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 |
| 한국 천주교회, 한국어 미사 시작 | 1967 | |
| 표준판 공포 이후 한국어 번역 착수 | 1970.3.26. | 개정된 로마 미사 경본 표준판 공포 (1971 수정) |
| | 1974.1.10. |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사도좌 추인 |
| | 1975.3.27. | 로마 미사 경본 제2표준판 발행 |
| 주교회의, <i>Missale Romanum</i> 한국어판을 『미사 경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1976년 부활 대축일부터 공식 사용 | 1975.4.18. | |
| 주교회의, 신자용 『미사 경본』 출판 (1992년 신조판 발행) | 1979 | |
| 주교회의,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9) 서울 개최를 앞두고 미사 전례문과 예식서 개정 결의 | 1987 | |
| 미사 통상문 개정 발행, 대림 제1주일부터 공식 사용 | 1996 | 미사 통상문 한국어판 사도좌 추인 |
| | 2002 |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 발행(2008 수정) |
| 『로마 미사 경본』(제3표준판) | 2017.2.21. | 한국어판 사도좌 추인 |
| 주교회의, 『로마 미사 경본』 발행 | 2017.8.15. | |

* 새 『로마 미사 경본』의 발행 배경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것은 자국어 미사 거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부터 우리말로 미사를 거행하기 시작했고, 1975년에 우리말 첫 「미사 경본」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주교회의 1987년 추계 정기 총회의 결정에 따라 미사 통상문을 비롯해 모든 전례문과 예식서를 우리말 어법과 고유 예법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고, 1996년에 개정된 「미사 통상문」을 발행하였다.

이후에도 미사 경본의 개정 작업은 계속하여 라틴어판 최종본인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2002년, 이하 제3판)과 그 제3표준 수정판(2008년, 이하 수정판)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2017년 2월 21일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새롭게 「로마 미사 경본」을 펴내게 되었다. 이 미사 경본은 한국어 제3판으로 다가오는 12월 3일 대림 제1주일부터 사용한다. 참고로 라틴어 수정판은 제3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미사 경본의 기본은 2002년에 발행된 제3판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어판 최종본인 「로마 미사 경본」 제3판과 그 수정판 전체를 번역한 미사 경본은 갖지 못하고, 미사 봉헌에 필수적인 부분과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미사 경본 총지침」 등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소책자로만 활용해 왔다.

이번에 발행되는 한국어판 미사 경본은 라틴어판의 완전한 번역으로서, 원본에 있는 악보도 그대로 실어 본연의 의미의 ‘노래 미사’(Missa Cantata)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보통 ‘창 미사’라고 하는 노래 미사는 ‘대영광송’과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양’ 등을 노래로 바치는 미사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노래 미사는 본디 미사 시작의 성호경부터 사제와 신자의 인사 그리고 감사송 등 미사 경문의 많은 부분을 노래로 바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이 모든 악보를 함께 실은 것이다.

한편 1975년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지속적인 전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반영한 여러 예식서가 발행되었다. 여기에는 전례 예식에 관한 최근의 사도좌 문헌들과 개정된 「교회법전」(1983년)을 반영하였다. 또한 여러 지역 교회에서 라틴어 미사 경본 제2표준판을 번역하여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회의 개별적인 적응들을 더하고 고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위의 적응들을 반영한 라틴어 「로마 미사 경본」 제3판과 그 수정판 전체를 번역하여 라틴어 경본과 온전히 같은 형태의 우리말 미사 경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응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사도좌의 추인을 얻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새 「로마 미사 경본」의 특징

한국 교회에서 이번 「로마 미사 경본」의 발행으로 미사 거행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대적인 전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면서 전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심화되고 정착되어 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문화에 적응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난 30-40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 긴 과정의 결실이 라틴어 「로마 미사 경본」 제3판과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는 이 원본을 충실히 번역하면서 우리 교회와 문화에 적응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고 사도좌의 추인을 얻어 새 「로마 미사 경본」을 발행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이번에 발행되는 미사 경본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사 거행에서 달라지는 일부 시행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어 미사 경본의 원문이 되는 라틴어 미사 경본 제3판의 특징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미사의 교회론적인 차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가 혼자 드리는 미사가 첫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트리엔트 공의회 직후(1570년)반포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서 양쪽 벽을 따라 작은 제대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사제들이 혼자 미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제3판은 미사 전례의 교회론적이고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하여 사제가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성찬례의 전형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미사 경본 총지침」, 115항 이하 참조). 그뿐 아니라 특히 지역교회에서 주교가 사제단, 부제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둘러싸여 하느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첫자리에 두었다(전례 헌장 41항; 「미사 경본 총지침」, 112항 참조).

2) 「미사 경본 총지침」 제9장은 이전 경본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여기에서 각 지역 교회는 로마 전례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교회 주교들이 사목적 필요에 알맞게 미사 경본에 제시되지 않은 적응들을 마련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3) 이전에는 신앙 고백문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 제3판에서 사도 신경을 폭넓게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바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신학적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더 완전하기는 하지만, 사도 신경도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한 것으로 초세기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다. 사도 신경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보다 더 오래되었고, 또한 동·서방 교회가 공유하는 신앙 고백문이다.

4) 전례 시기에 알맞고 한층 더 풍요롭게 완전한 전례문을 제시하였다. 이전에는 대림 시기 평일에 사용하는 몇 개의 기도문만을 제시하였는데, 대림 시기의 모든 평일에 고유한 기도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부활 시기에 부활 팔일 축제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사용하던 이전과는 달리 부활 시기의 모든 날에 옛 성사집에서 가져온 고유 기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1975년 이후 보편 전례력에 들어온 새로운 축제일 거행을 위한 전례문들을 넣었고, 성모 마리아 공경을 촉진하고자 새로 미사 전례문을 만들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통 미사를 풍부하게 하였다.

5) 그레고리오 성가 악보를 부록이 아니라 통상문과 고유 기도문의 해당 자리에 배치하여 주 일이나 대축일 등에 온전한 노래 미사를 거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새 「로마 미사 경본」의 발행으로 성찬례 거행에서 달라지는 예식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행하는 미사 거행 양식이 이번 우리말 미사 경본 발행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 주교회의는 새 미사 경본을 준비하면서 라틴어 원문에 더욱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변화가 따르게 되었다.

1) 사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와 같은 인사에 교우들의 응답이 ‘또한 사제와 함께.’에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뀐다. 본디 라틴어 본문은 ‘Et cum spiritu tuo’(또한 너[당신]의 영과 함께)인데, 경신성사성과 논의한 끝에 우리말의 어법을 고려하여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할 때 빠진 ‘영’을 삽입한 것이다. 사제와 교우들의 이 인사말에서 사제는 성찬례에 참여한 교우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넨다. 이 인사는 바오로 사도가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서두에 했던 인사말을 미사 서두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사제의 인사에 대한 교우들의 응답에서 라틴어 본문의 ‘영’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제단에 오른 사제는 그리스도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직무는 사제 서품으로 사제의 영에 인호로 새겨진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이제 막 영적인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제의 영에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성찬 기도의 성혈 축성 기도에서 ‘모든 이를 위하여 바칠 피다.’에서 ‘모든’이 라틴어 본문에 따라 ‘많은’으로 바뀐다. 본디 「성경」에도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8; 마르 14,24)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지역 교회에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보편성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모든’이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은 늘 열려 있게 한다는 사도좌의 뜻을 지역 교회들이 받아들여 라틴어 본문대로 수정하였다.

3) 영성체 전에 사제가 교우들을 향해 성체를 들어 보이며 건네는 일종의 외침에서 ‘하느님의 어린양’ 앞에 ‘보라!’를 넣는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는 ‘보라!’가 들어 있었는데 우리말 어법에 관한 논의에서 삭제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부분은 요한 복음 1,29에서 온 말씀으로서 성경 그대로, 그리고 라틴어 본문의 ‘Ecce’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것이다.

* 전례력에서 조정된 부분들

그동안 우리나라 전례 거행은 대체로 보편 전례력을 따르면서도 전교 지역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해 온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편 전례력에 맞추어 전례일 명칭과 등급, 시행 방법 등을 조정하였다.

1) 모든 전례일의 명칭을 라틴어 경본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등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이 붙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앞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가 붙고, 위령의 날 앞에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이 붙는다. 또한 라틴어 본문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이 ‘주님 성탄 대축일’로, 예수 부활 대축일이 ‘주님 부활 대축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리고 동정 마리아에 붙는 형용사 표현 ‘복되신’ 또한 라틴어 본문대로 넣는다.

2)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서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라는 명칭은 삭제하고 ‘복되신’을 넣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로 수정한다.

3)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기념일과 12월 3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선교의 수호자)기념일에서 ‘선교의 수호자’ 명칭을 삭제한다. 그리고 이 두 날은 그동안 대축일로 지냈으나 보편 전례력을 따라 기념일로 변경한다.

4) 우리나라 고유의 전례 거행에 관련한 것은 다음과 같다.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은 신심 미사로 거행한다. 이는 같은 성인에 대하여 두 번의 기념일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9월 20일에 대축일로 거행하고 있다.

새해를 시작하는 때(음력 1월 1일)에 기원 미사 예식 규정에 따라 ‘설’ 명절 전례를 거행한다. 설 명절이 사순 시기 주일이나 재의 수요일과 겹치면 보편 전례력에 따른 미사 전례문으로 미사를 드린다. 설 명절 미사는 흰색 제의를 입고 드린다.

추석(음력 8월 15일)은 기원 미사 예식 규정에 따라 ‘한가위’ 명절 전례를 거행한다. 한가위 명절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과 겹칠 때에는 대축일 미사를 드린다. 한가위 명절 미사도 설 명절 미사 때처럼 흰색 제의를 입고 드린다.

6월 25일에 기원 미사 예식 규정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원 미사를 드린다. 이날 미사에는 흰색 제의를 입는다.

이외에 전례 거행 또는 전례력에 관한 작은 변화도 많이 있으나 미사 경본에 자세히 실려 있기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중요 사항만을 소개한다.

* 새 「로마 미사 경본」의 발행에 이은 각종 전례서의 발행

새 「로마 미사 경본」의 발행에 이어, 이제 이 미사 경본과 동일한 예식서들도 모두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2-3년 안에 새로 나오게 된다. 이 전례서들은 다음과 같다.

「혼인 예식」, 「장례 예식」, 「병자성사 예식」, 「유아 세례 예식」, 「어른 입교 예식」, 「견진 예

식», 「서품 예식», 「수도 서원 예식», 「고해성사 예식»,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성유 축성 예식»,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예식»,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등을 위한 예식», 「동정녀 봉헌 예식»,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화상 대관 예식», 「대수도원장 축복 예식», 「축복 예식», 「구마 예식», 「주교 예절서」.

이 밖에도 「로마 미사 경본」의 발행에 따라 개정되는 「가톨릭 기도서」도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은 뒤 출간할 예정이다.

새로운 우리말 미사 경본의 발간으로 미사 거행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온전한 형태의 미사 경본을 갖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 우리말 경본은 라틴어 경본을 더욱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보편 전례력에 맞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례 거행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 우리말 경본 출판이 우리나라에서 전례 거행이 보편성을 띠면서도 토착화를 발전시켜 가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경향잡지, 2017년 10월호,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대전교구 보좌 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본 매뉴얼은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 전례분과위원회를 위해 기존 본당 자료를 모아 마련한 매뉴얼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각 본당에서는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 시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전화: 727-2065~6 팩스: 727-2374
전자우편: missionary@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www.samok.or.kr>

